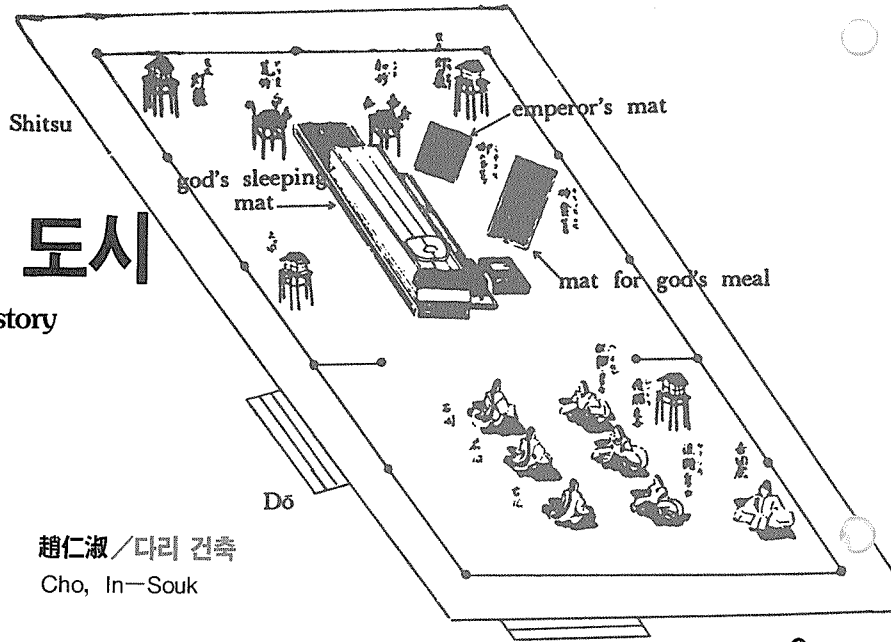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다리 건축
Cho, In-Souk

目次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 文化와 쇼잉(書院), 茶室과 스기야(數奇屋)
6. 城의 時代
7. 에도(江戸)—‘空間’과 ‘張’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2. 제례의식, 불교건축

1. 祭禮儀式과 空間의 公有¹⁾

원시인들은 대체로 공간(空間)을 단순히 빈틈이나 구멍으로만 여겨서 공간이란 것은 뭔가 좀 덜된 것 또는 모자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두운 동굴과 깊은 갈라진 틈, 끝없는 바다와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등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공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건축적으로 연구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신도(神道)의 제례와 거기 관련된 의식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인간과 제사를 받는 신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공간의 관계는 상당히 독특한 것이다. 신도(神道)제례중에 다이조오사이(大嘗祭), 니이나메마츠리(新嘗祭り), 아이나메노마츠리(相嘗祭り) 등은 가장 오래된 제례의 형태이다. 이들은 모두 음식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儀式)으로 새로 추수한 곡물과 새로 만든 술을 바침으로써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 또한 이 의식은 인간이 신과 음식을 나누는 연습이기도 하다. 이를 아이나메(相嘗)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함께 음식을 맛본다’는 의미이다.

다이조오사이(大嘗祭)란 한 대(generation)에 한 번 있는 가장 주된 의식으로 황제즉위후 첫 가을에 열렸다. 제사는 다이조큐우(大嘗宮)라고 하는 암시신전(神殿)에서 열렸는데 이는 헤이안쿄오(平安京; 지금의 교오또(京都))의 황궁안에 있는 정원(Official Quarter), 초오도잉(朝堂院)에 일시적으로 세운 신전이었다. (그림 4)

이 의식은 두 구역을 둘러싸고 가운데서 열렸는데 각각의 구역엔 本殿이 있고 뒷부분에 부엌, 북쪽에는 홀(Hall)이 있고 두 구역 공동 부분이 있었다. 本殿은 5칸²⁾ 깊이에 2칸 폭 크기이며 3칸×2칸의 방(닛츠:室)과 2칸×2칸의 홀(도오:堂)로 구성된다. 구조는 통나무를 껍질채로 덩굴로 엮었고, 짚다발을 땅에 깔아 바닥을 만들고, 입구에는 갈대발을 걸었다. 골풀로 만든 침대와 베개는 신이 사용하게 방의 중앙 가까이에 놓았고 황제가 사용하는 방석과 신의 음식을 놓을 짧은 다다미는 침대 옆에 놓였다. 침대가 굉장히 커서 거의 온방을 다 차지하니 황제자리가 동쪽으로 조금 겹친다. 公有하는 공간의 성격이 제법 명백하다.³⁾

「제례의식이 있는 날 저녁 늦게 황제는 목욕을 하고나서 한 쪽 구역의 本殿에 자리를 잡으면 관료들이 들어오고 손씻을 물이 들어온다. 그 다음 시녀가 음식과 그릇을 갖고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밥과 술을 신에게 바치고 그동안 시녀는 시중을 든다. 그 다음 황제는 밥과 술을 조금 먹는다. 그리고 나면 그릇들이 치워지고 다시 손씻을 물이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황제는 카이큐우텐으로 돌아간다. 한밤중에 다른 구역의 本殿에 제물이 준비되고 황제는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비슷한 의식을 또 치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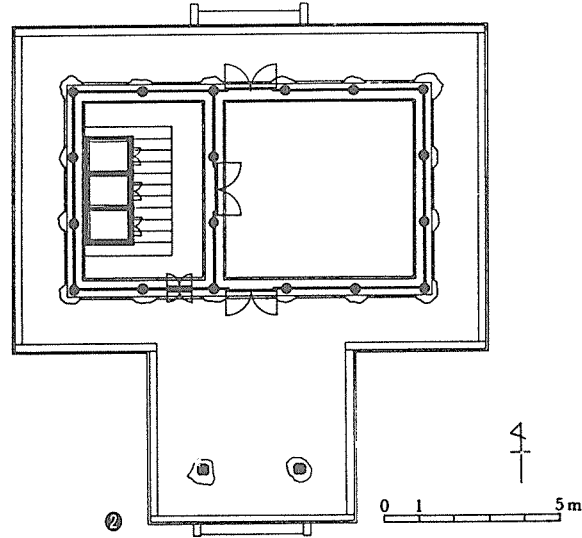
다이조오사이(大嘗祭)에서는 신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사이에 구별이 없다. 儀式은 뒷 쪽의 세 칸 즉 닛츠(室)에서 행해지고 이 때 관료들과 시중드는 사람들은 앞의 두칸, 즉 도오(堂)에서 기다린다. 여기서 ‘室’과 ‘堂’에다 内部空間구분을 잘못 해석하기 쉬운데 이는 후기에 종교건축에서 자주 발견되는 內·外殿 사이의 관계와 또는 중세봉건주택에서 격식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부공간 때문에 생기는 죠오단(上段)과 계단(下段)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쥬오사이(大嘗祭)에서의 경우는 아니다.

첫째, 시츠(室)가 神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도오(堂)가 예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다이쥬오사이(大嘗祭)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황제는 室에 들어가 神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러므로 室은 특별히 神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게다가 도오(堂)는 후기의 신도(神道) 예배전(拜殿)처럼 예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제가 室로 가는 통로이며 시종들과 관료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일종의 전실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堂와 室사이에 긴 천과 다다미를 걸어 놓고 의식은 후기의 신도(神道)의례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둘째, 다이쥬오큐우(大嘗宮)에서 부엌이나 카이류우덴 같은 건물들이 本殿과 같은 평면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엌은 坐向은 東西방향이지만 규모와 평면 구조등은 本殿과 똑같다. 즉 3칸 부분은 선반이 있고, 음식준비에 쓰였고 2칸 부분은 판트리로 쓰였다. 카이류우덴도 매우 비슷하다. 서쪽 3칸은 다다미를 깔았고 황제가 쉬는 곳으로 쓰였으며 동쪽 2칸은 욕조를 놓아 욕실로 쓰였다. 本殿의 평면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다이쥬오큐우의 표준이었다. 그 평면은 원시주거형태에서 기원한 것이다. 시츠(室)는 침실과 거실부분으로, 도오(堂)는 내·외부 공간 사이의 전실이나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즉 기본적으로 평면형태는 1실주거형(One-Room Dwelling)이었다. 이러한 류의 전실이 딸린 1실주거형태는 많은 예가 있다. 고대 북유럽과 지중해연안에서 발달되었던 메가론, 중국 윈난(雲南) 지역의 산인들의 주거형태, 그리고 일본 원주민 아이누族의 주거들이다.

매 년 가을 열리는 니이나메마즈리(新嘗祭り), 여름과 가을에 궁정에서 열리는 진곤지끼(鎮魂祭)는 사실상 다이쥬오사이와 똑같은 의식이다. 헤이안(平安)황궁의 추우카인(中和院)이라 알려진 本殿 신카덴(神嘉殿)에서 열렸지만 다이쥬오사이, 니이나메마즈리, 진곤지끼 등에서 의식을 주도했던 사람이 황제라는데 대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황제가 神과 공간을 함께 쓴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일이라는 것에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왜 자연스런 일인가 하면 황제 자신은 한 때 “아라히또가미(現人神)” 또는 “아키즈미카미(現つ神; 현재 살아있는 神)”으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이다. 니이나메(新嘗)와 아이나메(相嘗)는 궁정에서만 아니라 神社에서도 그리고 개인집에서도 치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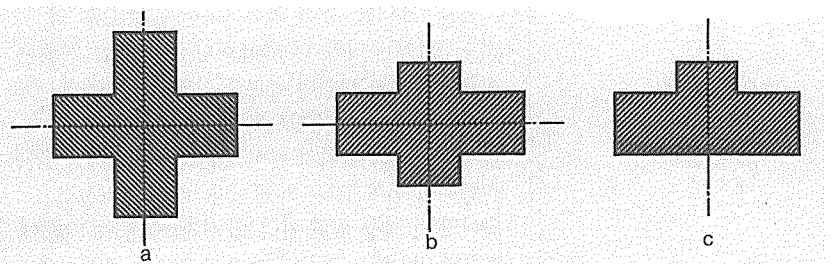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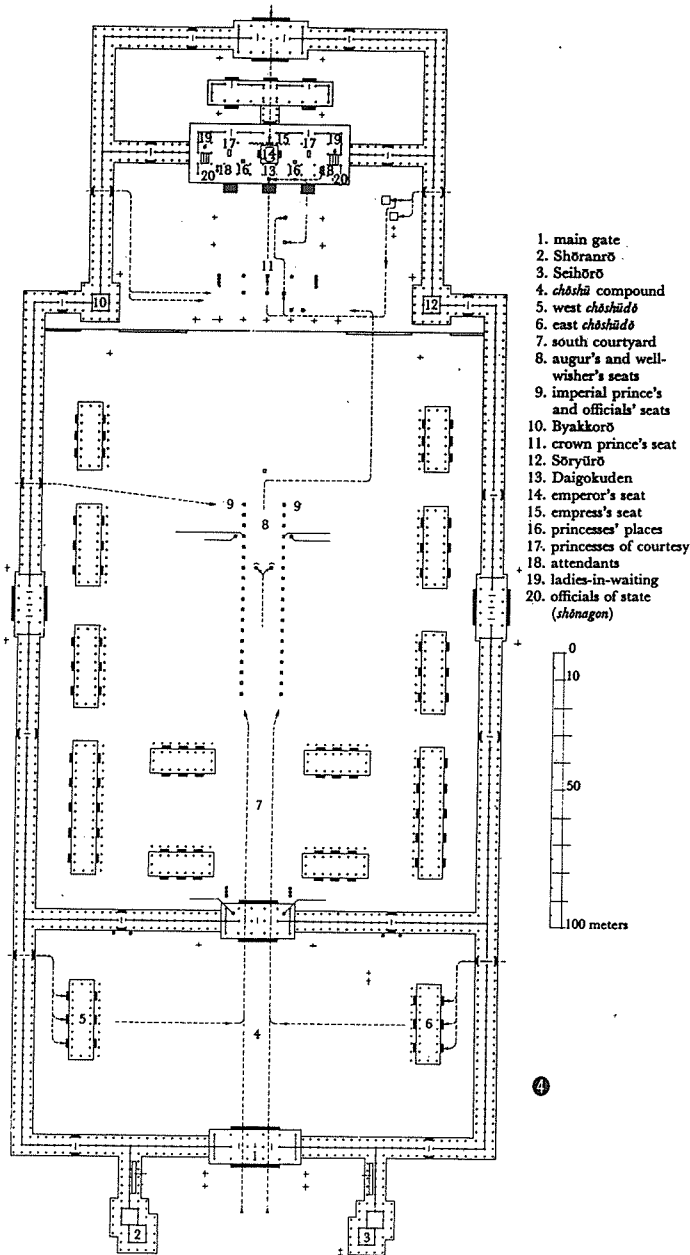
니혼쇼기(日本書紀)에는 왕자와 장관들이 각각 “니이나메”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비슷한 예가 후도끼(風土記)⁶⁵⁾나 만요우수(万葉書)⁶⁶⁾에도 있으며 같은 의식이 마을이나 개인집에서 치루어졌었다.

이런 종류의 의식중 개인집에서 했던 것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것 중에 노토반도의 ‘아에노고또’의식이 있다. 농사의 神이 마을의 한 집에 초대되어 겨우내 머무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부와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집주인이 겨울이 시작될 무렵 눈에 나가 神을 맞아 들여 그의 집으로 데려와 난로가에 앉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목욕실로 안내해서 목욕을 시켜준다. 그 다음 神을 응접실로 안내한다. 이때 응접실 도코노마(床の間, 일종의 Alcove)에 미리 놓여있던 낱알주머니쪽으로 神이 움직인다. 술과 음식이 올려지고 온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다.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집주인은 매 순서마다 神을 보통사람하고 똑 같이 대접한다. 神이 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마치 시중드는 시늉을 한다. 요약하자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神은 사람처럼 취급되며 이 점에서 볼 때 이 의식은 다이쥬오사이와 매우 흡사하다.

다음으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神社의식이 있다.

- ① 다이쥬오큐우(大嘗宮) 本殿 배치도
봉건시대의 그림으로 古代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INOUE p.14)
- ②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있는 히노 꾸마와 구니키키수神社의 本殿.
두 神社는 평면이 같고 1925년 복원 되었다. (INOUE p.17)
- ③ 건물에 있어서의 대칭성
a. 4개의 축에 의한 대칭
b. 2개의 축에 의한 대칭
c. 1개의 축에 의한 대칭





창문이 있다. 평면과 정면을 보면 구조는 비대칭이다. 만일 지금의 반 박공지붕이 박공으로 바뀌고 입구가 동쪽 박공면에 있다면 이 건물은 다이조오큐우(大嘗宮)의 본殿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그곳에서 아이나메 의식을 치른 기록을 보면 모든 집사들은 제사장에게 인도되어 外殿에서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 집사(priest)가 內殿으로 들어오면서 짚으로 된 자리에 앉아서 새로 빚은 술을 神에게 올린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술을 스스로가 마신다. 이는 다이조오사이(大嘗祭)와 아주 비슷하며 다이조오사이의 神과 人間이 空間을 공유하는 것과 동질의 공간을 보여준다.

궁정에서, 神社에서 그리고 개인집에서의 의식을 살펴보는 가운데 모시는 神과 제사드리는 人間사이에 空間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人間을 위한 공간과 神을 위한 空間을 구분하는 어떤 建築의 특징이 없다는 뜻이다. 時代가 올라갈수록 여러 종류의 神들이 밀접한 존재로서 있으면서 살고, 먹고, 자고 그들의 예배자와 함께 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神이란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거리를 두게 된다. 이는 중세봉건시대에 지속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조오사이와 궁중의식, 神社의 제례의식, 가정의 제례의식들의 본질에 남아있는 건축적 요소는 空間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人間을 위한 空間과 神을 위한 空間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러한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 空間은 딱딱 나누어지지 않았었다. 원시종족들 가운데 聖스런 물건이나 종교적인 의식의 장소로 여겨지는 여러가지 타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분화된 공간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古代日本은 분화된 空間에서 벗어났었고 심지어 人間과 神과의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에서조차 그랬다. 이 때의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공간감각을 가졌었고 그들의 관심이 복잡한 공간에 있는게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단단한 어떤 실체에 있었다. 물체 자체에 대한 이런 성향은 기둥에서 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

2. 일본 땅에서의 佛敎建築

일본건축에서의 空間의 發展의 두 번째 단계는 대륙문화의 유입으로 비롯되어 佛敎건축이라는 부분으로 대변된다. 日本史 속에서는 아스카(飛鳥) 및 하쿠호호(白鳳)시대가 중심이 되며 아스카데라(596, 나라(奈良県))에서 야쿠시지(藥師寺) 이전(718)까지의 약 100여 년 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사항은 大陸의

- ④ 헤이안(平安)시대의 Official Quarter
- ⑤ 호오류우지(法隆寺) 가란(伽藍) (Varley p. 25)
- ⑥ 호오류우지 곤도오(法隆寺 金堂) (中川武 p. 169)

오오사카(大阪府)의 수미요시寺는 본殿이 박공면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매우 유명하며 그 점도 다이조오큐우(大嘗宮)와 비슷하지만 제례의식에 비슷한 점이 있다. 13세기 기록에 의하면 神의 침구(sleeping mat)가 內殿에 있고 제물들은 主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중에는 內殿은 완전히 차단되고 式은 外殿에서 거행된다. 또는 본건물 앞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 불인 헤이텐(幣殿)에서 거행된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히노꾸마와 쿠니카카수神社이다. 현존하는 본殿은 최근에 복원한 것인데 평면은 상당히 독특하다. 두 神社 모두 동-서 방향으로 5칸에 측면 3칸이고 전·후면 중앙에 각각 문이 있다. 내부는 서쪽 2칸은 內殿이고 동쪽 3칸은 外殿이다. 바닥은 자갈로 되어있고, 神을 위한 자리 即 신자(神座)는 內殿에 있으며 거기에는 건물 前面으로 열리는 조그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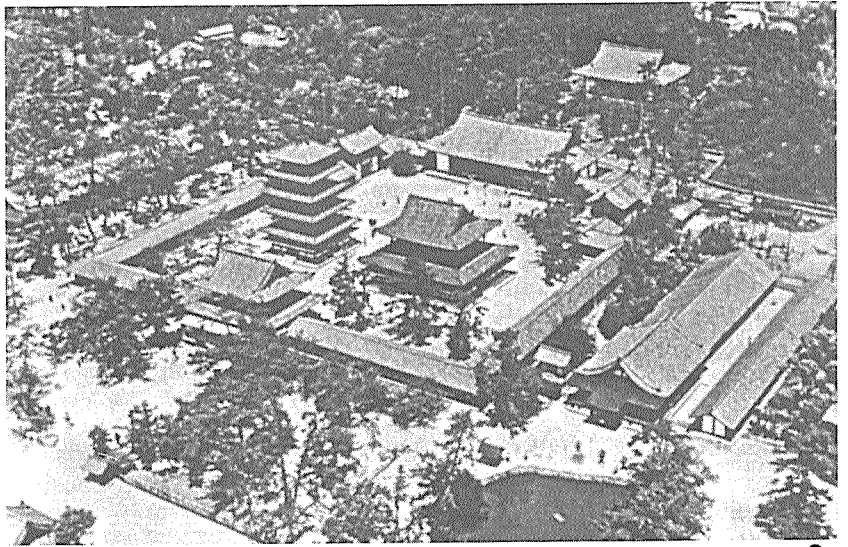
건축이 소개된 것이다.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양식의 건축이 급속히 전개되며 특히 佛敎寺院과 궁정의 저택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은 일련의 조화를 이루며 대칭으로 배치되어 都市에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공간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이 시기의 대륙스타일 건축에서 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단독건물에서만 아니라 일련의 건물군에서 그렇다. 특이한 점이란 건물이 平面상으로는 대칭이며, 형태는 입체감을 갖고 있고 공간 속에서 단독으로 서있는 것들이다.⁷⁾

이는 특히 일련의 건축군에서 중심건물일 때 더욱 그렇다. 즉 사찰에서의 塔이나 本殿, 궁전에서의 다이고꾸덴(大極殿)⁸⁾, 주택에서의 신덴(寢殿) 또는 神社에서의 本殿. 각각의 건물은 무엇이 그 건물의 중심이냐가 중요하다. 사찰에서는 불상이고, 궁전에서는 황제이며 주택에서는 집주인이고 神社에서는 神이다. 주건물은 때로는 일실구조(one-room structure)로 주제에만 맞도록 설계된다. 이런 류의 건물들이 중기 헤이안(平安)시대까지 계속 되지만 특히 아스카, 하쿠호오시대에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 時期의 공간의 발전단계에서는 주된 영역이 内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공간까지 연장된다. 사찰의 중심건물 주변의 공간까지가 부처를 위해 있고, 황궁의 主殿주위의 공간은 황제를 위해 있다. 이는 건물과 그리고 카이로오(回廊)라고 하는 벽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된다. 회랑에 있는 문까지도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중정과 외부공간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매디테이션 장소로 그 중정은 또한 주제를 위해 남겨진 공간이다. 문은 그래서 이 공간 발전단계에서 독특한 공간기능을 갖고, 이는 설계에까지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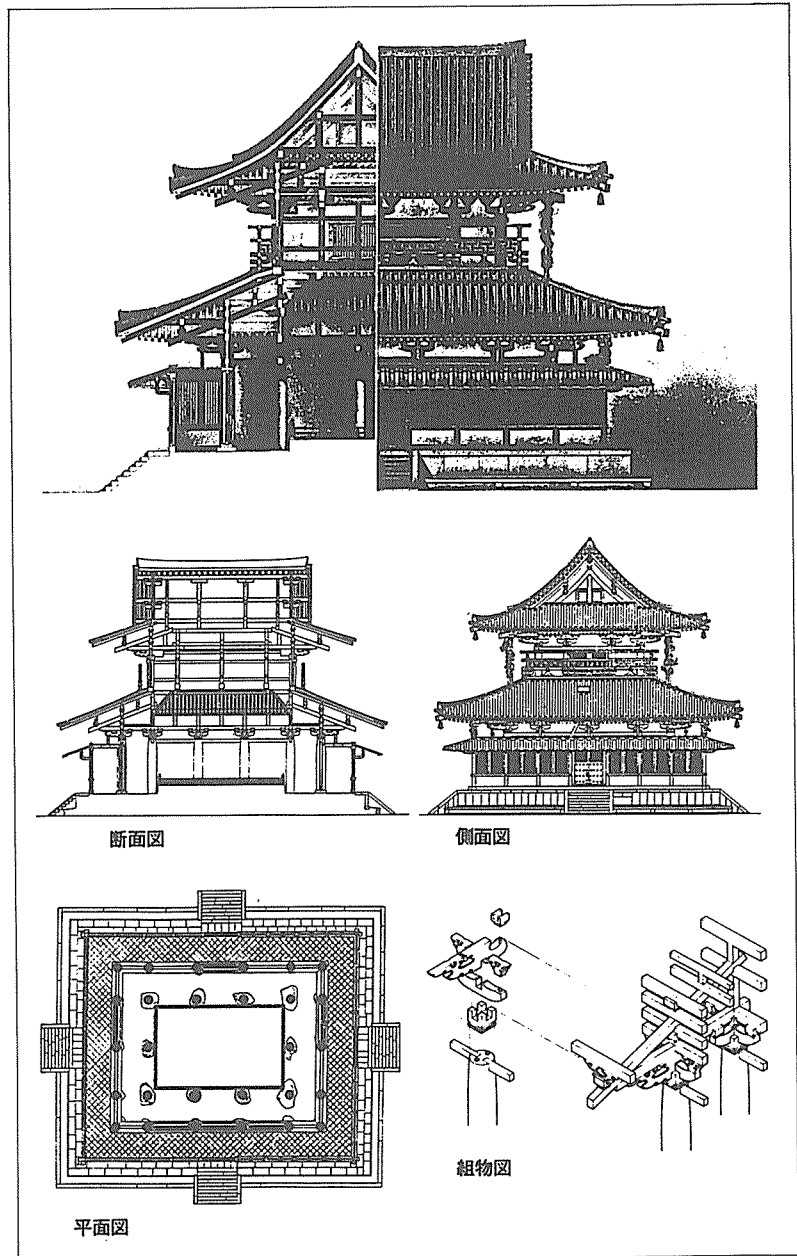
이 조형적 가치를 앞에서 말한 원시적인 공간의식과 밀접한 것으로 空間으로서 보다는 본질에 관련된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건축은 초창기 건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것으로써 생각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건물에 있어서 대칭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칭하면 한 축(axis)에 대한 대칭을 생각한다. 그러나 건물을 놓고 볼 때 두 개 또는 네 개의 軸에 대한 대칭성을 꼭 살펴봐야 한다. 세가지 평면(그림 3)을 비교해 보면 a의 대칭이 가장 강하고 c의 대칭이 가장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과 같은 3차원적인 조형물에서 立面대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대칭성에 대해 얘기된다면 중요한 점은 건물에서의 대칭성은 평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3차원적인 실체로서의 대칭성에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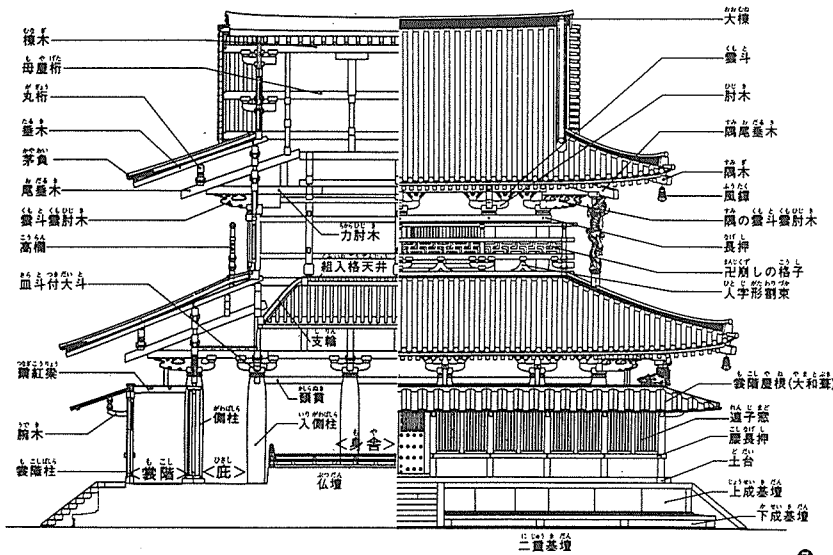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불교전래때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6세기경에 중국과 한국에서 주도적인



⑤



⑥



⑦ 法隆寺 金堂의 입·단면도 (中川武 p.257)

세력이 되었던 불교가 538년⁹⁾ 일본으로 전래되어 금세 정치적, 종교적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자기의 祖先이 카미(神)임을 위신으로 삼고 있던 야마토(大和) 호족들에게 불교는 현실적인 위협을 주었다. 6세기 중엽 불상을 숭배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야마토(大和)대호족간에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되었다. 587년 소가(蘇我)씨가 모노노베(物部: 세습적인 무장집안)와 나카토미(中臣: 신도오(神道)의 제례를 맡은 집안)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佛教의 수용은 확실한 사실로 되었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는 592년 그의 조카딸인 야마토국의 수장의 암살을 감행하고 조카딸 스이코(推古)를 여성통치자로 내세우고 그녀의 조카이며 소가(蘇我)씨의 외손이며 사위인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를 섭정으로 삼았다.(593년) 스이코(推古)정권은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문화를 발전시켰다. 622년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가 죽은 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도 잇달아 정계에서 물러나자 야마토(大和)는 격렬한 정치항쟁에 휩싸이게 된다. 645년 소가노이루카(蘇我入鹿)가 암살되고 소가씨의 일족은 몰락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다. 646년 개혁과는 「改新의 詔書」를 반포하고 새로이 연호를 정하여 타이카(大化; ‘커다란 변화’라는 의미)라 칭한다.

日本에서 최초의 佛教寺刹은 6세기말 소가(蘇我)씨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나라(奈良)의 남서쪽에 있는 호오류우지(法隆寺)에 있다. 이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木造건물이기도 하다. 원래는 607년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때 세워졌으나 670년 불에 타고난 후 다시 지었다. 이 시기의 불교사찰은

가란(伽藍)이라는 형식에 따라 배치되었다. 가란(伽藍)이 건물의 수와 배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회랑이 주건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회랑이 남쪽 중앙에 입구가 있다. 주건물들이란 소위 말하는 금당(金堂), 강당(講堂) 그리고 적어도 탑(塔) 하나이다. 여기서 탑(pagoda)이란 인도의 스투파(stupa)에서 유래된 건축형식으로 원래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넣어두는 곳이다. 호오류우지에서는 금당(金堂)은 오른쪽에, 五重塔은 왼쪽에 회랑안에 있고 그리고 講堂은 회랑 바깥 뒤 쪽으로 있다. 금당의 특징은 기단을 높인 점과 팔각지붕으로 호오류우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이는 중국의 六朝시대 불교양식을 특히 대변한다.(계속)

註)

- 1) Shared Space라는 표현은 神과 人間이 공간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사실상 그 공간을 共有하게 되므로 空間의 共有라 표현했다. 그리고 이 부분의 內容은 이노우에의 글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 2) 1칸은 8샤쿠(尺), 약 2.4m였다.
- 3) 다이조오 儀式기록인 다이조오에끼(1108년)에 의하면 神의 침구는 12.5尺×17尺(약 4m×5m)였다고 한다.
- 4) 이 제례의식의 묘사는 제례의식절차 기록에 의한다.
- 5) 후도기(風土記)는 8세기 초 나라(奈良)시대 말기에 각 지방의 지명의 유래, 지세, 산물, 전설 등을 적어 조정에 올린 地誌
- 6) 만요수(万葉書)는 8세기 중엽 역사 나라(奈良)시대 말엽에 이루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詩歌集
- 7) 이노우에는 이를 “plastic composi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
- 8) 헤이안(平安) 시대에 천황의 正殿
- 9) 522년설과 538년 설이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문헌

1.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Chap.2)
3. Japanese Culture by Paul Varley(Chap.2)
4.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中川武編
5. 日本の歴史 by 井上清(서동만 옮김)
6. 日本の歴史 関斗基 編著
7. 日本史 by John whitney Hall(朴英宰 역)
8. 日本書紀 成殷九 譯註
9. 百濟寺刹建築 張慶浩 著
10.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11. 日本美術史 奏弘雙譯
12. “Source of Japanese Tradition” by Tsunoda
13. “Horyuji” by Edward Kidder